陽村先生 "서천견록(書淺見錄)"

▣ 이 광 호 (연세大 철학과 학과장)

〈지난호에 이어〉

공자가 말하기를 "오직 하늘이 위대하거늘, 오직 요 임금만이 이를 본받으셨도다"라고 하였다. 이 말에서 우리는 공자가 '서경(書經)'을 산삭(刪削)하면서 요·순으로부터 그 이하로 수록 범위를 끊은 뜻을 알 수 있다. 세차(歲差)가 오래 쌓여 친도(天道)가 점차 반대로 되어, 화수(火宿)가 동짓날중성이 되기에 이르르면, 만물이 생겨나지 않아 다시 혼돈이 된다. 이에 다시 하늘과 땅이 열리면 주조(朱鳥)가 또다시 남방에 나타날 것이다. 작게는 하루의 시작과 끝이며, 다음에는 일년의 처음과 끝이며, 크게는 일천지(一天地)의 처음과 끝이다. 비록 느리고 빠름이 다르지만 그 법도는 하나이다. 망령된 나의 생각은 이와 같으니, 외람되게 이상의 설을 적어, 천문을 아는 사람이 절충해 주기를 기다린다.

4

1년은 366일로 하늘과 태양이 만나는 수치를 말한다. 1년은 12달이고, 1달은 30일이다. 360이란 것은 일 년의 상수(常數)이다. 그러나 하늘과 태양은 365일 조금 지나서 한 번 만난다. 이는 360일의 상수(常數)를 지나쳐 5일여 더 많다. 달과 해는 매양 29일이 조금 넘어서 한 번 만난다. 1년을 지나면 12번을 꽉 채워 만나고도 여분이 생기니, 통산하면 354일 조금 넘는다. 이는360일의 상수(常數)에 못 미쳐 5일이 적다. 대개 달에는 이지러짐과 참이 있어, 한달의 그믐날과 초하루가 정해진다. 별이 하늘을 회전하면서 일년의 춥고 더움이 돌고 돈다. 달이 기울고 차기 때문에, 360일의 상수에 못 미쳐 일 년이 이루어진다. 별이 하늘을 돌기 때문에 또한 360일의 상수를 지나쳐 윤달이 생긴다. 달이 기울고 차는 것을 가지고 초하루를 정하지 않으면 일년의 기운에 절기가 없어진다. 별이 주천(周天)하는 것을 가지고 윤달을 두지 않으면 삼년의 절후에는 그 때를 잃게 된다. 하늘과 해와 달이 서로 함께 미루어 옮기면서 저절로 이러한 숫자가생 긴다.

1년의 윤달은 1달의 쌓임에서 생기고, 1달의 쌓임은 1일의 편차에서 시작한다. 1일은 12시(時)이며, 나누어 100각(刻)이 되므로 1시(時)는 8과 1/3각이다. 3시(時)를 지나면 1각(刻)이 생기며, 6시를 지나면 2각이 생기고, 12시를 지나면 4각을 얻게 된다. 하룻동안에 온전한 각(刻)은 96각이고, 나머지여분(餘分)의 쌓임이 4각이니, 통틀어 100각이다. 이 4각이란 것은 1일 12시에서 생긴 윤수(閏數)이다.

1일은 100각인데 나누어 940분(分)으로 삼으니,1각(刻)은 9분(分) 남짓이 된다(정확히는 940÷100=9.4분). 3각(刻)을 지나면 1분(分)이 생기며(정확히는 0.4분×3=1.2분), 5각에 2분, 10각에 4분을 얻는다. 하룻동안 온전한 분(分)은 900분이고, 여분의 쌓임이 40분이니, 통틀어 940분이다. 이 40분이란것이 1일 100각에서 생긴 윤수(閏數)이다. 달과 해가 만나는 주기는 29일과 940분의 499일(=0.530851일)이니, 29일을 그믐날로 삼는 소진지월(小盡之月:작은 달)에는 아직 달과 해가 만나지 못한다. 다음 달 초하주 태양이 오방위(午方位)를 지난 후에 비로소 만나게 된다. 전날 자반(半) 이후로부터 태양이 오방위(午方位) 남짓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6시(時) 남짓이 되니, 곧 각(刻)으로는 50여 각이며, 분(分)으로는 499분이다(499분은 499/940=0.530851일에 대한 환산값). 초하루를 지나 3일이면 밝은 빛이 생기며, 30일을 지나 야반(夜半) 자시(子時)를 넘은 뒤에 이르게 되면 또다시 회합하게 되니, 이것이 대진지월(大盡之月:큰 달)이다. 이로써 추산하면 여섯 번 작은 달[六小月]과 여섯 번 큰 달[六大月]이 생긴다.

〈다음호에 계속〉

특기별고 〈33회〉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橃)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

■ 權 仁 浩 (철학박사, 대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충재 선생이 삭주 적소에서 금호(錦湖) 임형수(林亨秀, 1504-1547)가 양재역 벽서 사건을 고발한 정언각이 터무니없는 말을 지어내 모함으로 절도에 위리안치로 유배를 보냈다가 사사(賜死)되었다는 부음을 듣고, 술을 가져오라 하여 한꺼번에 몇 사발을 들이킨 후에 "이 사람도 또 죽었구나." 하면서 목이 쉬도록 통곡하였다. 정언각이 "임형수는 윤임과 같은 마을에 살면서, 심복이 되었다." 날조하여 이기, 정순붕에게 홍문관 부제학의 전임이었던 임형수를 죽이게 된 것이었다. 임형수는 본관이 평택이고 나주출신이다. 부친은 북병사 임준이고 어머니는 안동 권씨 현감 권석의 딸이다. 임형수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성격이 강직하여 진사와 문과를 거쳐 사사독서하고 청요직과 지방관을 거쳐 부제학으로 승진했다가 을사사화 때 제주목사로 좌천되었다가 파직되었었다. 호당에서 공부할 때 이황, 김인후 등과 친교를 맺었고, 그는 학문, 문장, 덕행에 모두 뛰어나 칭송을 받아 장래가 촉망되던 사람이었다.

다음해인 충재 선생 71세 때(명종 3년;1548;무신) 2월 14일 저작(著作;정8품) 안명세가 국사를 기록한 일로써 참형을 당하였다."명종실록"7권의 2월 14일(신유) 2번째 기사에는 '안명세의 공초를 받고 조율케 하다' 와 3번째 기사에 '안명세를 당현(唐峴)에서 참(斬)하고, 그의 처자(妻子)는 종으로 만들고, 재산은 관(官)에서 몰수하였다.' 라는 기록이 나온다.

며칠 뒤인 2월 19일에 이를 빌미로 이기(李芑) 등의 무리가 충재 선생과 이언적을 더 중한 벌로 다스리도록 계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실록에도 이 조정회의 전말이 기록되어 있다(명종실록 7권, 3년 2월 19일(병인) 3번째 기사 ; 「대신들이 정유·을사년에 적몰되지 않은 자들을 추론하길 청했으나 불허하다」

14일의 기사에 사신(史臣)이 논하기를, "명세는 단정한 사람이다. 사재(史才)가 있어 한림(翰林)이 되었다. 을사년 정난(定難)의 옥(獄)을 당하여 사실에 의거해서 바르게 기록하고 자신의 의견을 첨가하여 "춘추(春秋)"의 뜻을 붙였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 찬집청(撰集廳) 군간(群奸)들에게 지적을 받아 대죄(大罪)에 걸리고 말았는데, 국문을 받을 때에는 언사(言辭)가 자약하였고 죽음에 임해서도 신색(神色)이 조금도 변함없었다. 동호(董狐) 같은 직필(直筆 ; 동호는 춘추시대 진(晉)나라의 사관(史官). 그는 어떤 위세(威勢)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실을 사실대로 직필하여 훌륭한 사관이었음) 이 몸을 죽이는 매개가 되었으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또 사신은 논한다. 안명세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이기 등이 그를 역당(逆黨)이라 하여 대역(大逆)으로 논해서 극죄(極罪)로 다스렸으니, 사화(史禍)가 여기에 이르러 극도에 달한 것이다."라고 논평하였다.

특히 안명세는 문장과 학식이 뛰어나고 성품이 강직하여 사관(史官)으로서 적격의 인물이었다. 여러 간신배들의 행태와 여러 현정신(賢正臣)들의 억울한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 하였다. 특히 그는 충재 선생에 대해서 그 충직함을 칭송하면서 자주 기록하였는데 하나도 거리낌이 없었다.

이것은 연산군 때 유자광이 이극돈에게 사초(史草) 내용을 밀고하여 무오사화(戊午士禍)를 일으킨 것과 같이, 당시 나라꼴이 말이 아니었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 사건은 당시 나라 안에 뜻있는 선비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남명 조식(曺植, 1501-1572)이나 안명세와 절친하였던 토정 이지함(李之 , 1517-1578)의 문집 등의 기록 속에서도 이 사건이 특필되어 있다.

이 무렵으로 추정되는 봄날에 충재 선생은 「삭주에서 회포를 읊다(朔州詠懷)」라는 제목의 칠언 절귀 한시(漢詩)를 남겼다. <天里關河失路人(천리관하실로인) 고향의 산하에서 천리 머나먼 곳에 길 잃은 나그네, / 新年沙塞更傷春(신년사쇄갱상춘) 새해엔 변방의 강 모래사장에서 봄빛에 더욱 가슴 아프다. / 相看雪嶺相思意(상간설령상사의) 아직 눈 쌓인 산마루를 보며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에, /憶弟懷兄淚滿巾(억제회형루만건) 형과 아우를 보고파 생각하니 눈물이 수건에 가득하네> 이 시는 명나라와 국경인 압록강변 평안도 삭주의 적소에서, 강직하고 뜻 있는 젊은 후배들이 죽어가는 비참한 소식들을 들으며, 천리 머나 먼 남쪽 고향 및 형님(의檥)과 아우들(례櫪와 장檣)에 대해 봄날 햇빛을 바라보며 그리워하는 심사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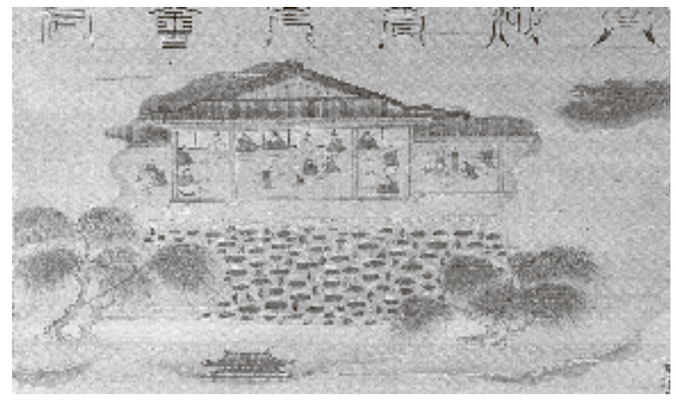
명종 3년(1548년 戊申 : 명 가정(嘉靖) 27년)1548년 3월 26일 선생께서 유배지 삭주에서 71세로 세상을 떠났다. 5월에 고향으로 棺을 옮겨 11월에 유곡 뒷산 癸坐丁向(북동-남서)으로 장사 지냈다. 감기 기운이 조금 느껴서 자리에 누웠으나 책을 유배지에서 항상 書冊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죽을 때까지 그곳 어린 애들을 모아 "千字文"을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았기 때문에, 모시고 있던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병 이 위독한 줄을 몰랐는데, 이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다음호에 계속〉

耆老會 宴會場面 남지기로회도

(기로회) (연회장면)

■ 권 정 택 기로회장



남지기로회도는 보물 866호로서 이기룡이 그린 원로사대부로 구성된 조선 중기 도화서 화가였던 이기룡이 그린 70세 이상의 원로사대부로 구성된 기로소 회원들이 풍류를 즐기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 광경을 그린 것이다.

가로 50㎝, 세로 60.5㎝의 비단 바탕에 그린 이 그림은 서울 숭례문 밖 남지에서 열린 모임을 그렸다. 그림 위쪽에 '남지기로회도'라고 쓰여 있으며 좌우와 아랫부분에는 참석인원들의 관직·성명·본관 등의 내용과 모임의 성격이 기록되어 있다. 기로소 회원 12명의 계회 모습을 그렸는데, 연꽃이 피어있는 연못을 중심으로 좌우의 앞에 버드나무 한 쌍이 그려진 짜임새 있는 구도이다.

이러한 기로회도는 계회도의 일종으로 조선 전기에는 계회를 하고 있는 선비들을 작게 표현하여 배경이 전체를 차지했던 반면, 이 그림에서는 계회장면이 부각되고 산수배경의 묘사가 줄었다는 것에서 조선 중기 계회도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독서당계회도(讀書堂契會圖)

조선시대 국가의 중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독서연구 기구인 독서당을 배경으로 그린 계회도이다. 계획도는 소속이 같은 문인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풍류를 즐기기 위한 모임 모습을 선조조에 그린 것이며 보물867호로 지정되었다.

가로 57.5㎝, 세로 102㎝ 크기로 누가 그렸는지는 알수 없으나 선조 3년(1570)경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정철·이이·유성룡 등 9인이 참석한 계회를 그린 것으로 산수배경과 독서당의 모습을 강조하였다. 산과 독서당 건물을 왼쪽에 치우치게 묘사하였고, 배들이 강가에 줄지어 떠 있으며, 건물 왼쪽에는 선비들이 앉아있고, 산을 넘는 인물들도 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 보이는 짧은 선과 점들로 다루어진 산의 모습은 안견파 화풍의 여운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안견의 화풍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독서당은 세종8년(1426) 집현전 대제학 변계량이 세종의 명을 받아 국가의 주요 인재를 길러 내기위해 젊고 유능한 학자들에게 휴가를 주어 사가독서(賜暇讀書)하게 한 데에서 비롯됐다. 일명 호당(湖堂)이라 한다.

사가독서는 세조 때 집현전의 폐지로 없어 젓 다가 성종 때 홍문관 설치와 남호독서당으로 복구되었고 이후 중종 12년 (1517)년에는 지금의 서울 성동구 오수동 한강연안의 두 모포에 독서당을 신축하고 동호독서당(東湖讀書堂)이라 했다.

동호독서당(東湖讀書堂)은 이후 70여 년간 조선시대의 최고의 인재 양성기관으로 이름을 떨쳤고 조광조·주세붕·이황·이이 정철·권채·유성용·이항복·이덕형 등이 모두 여기를 거쳐 갔으며 조선왕조때 명성을 날린 문신들중 독서당에 뽑혀 수학 연마하지 않은 이가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한다.

성동구 독서당복원(讀書堂復元)계획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산37-1번지 부지를 선정하고 670m2 건물 9동 46칸 규모 우리나라 고유에 전통 건축양식인 한옥형태로 복원한다.

독서당 내부의 正堂(사당)에는 역대 湖堂 296명의 위패를 안치하고 文會堂(독서실) 上房(자료연람실) 南樓(휴게실) 行閣(복도 및 전시공간)으로 바깥에는 조경 및 부대공간으로 꾸민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30억 원으로 추산하고 문화재청·서울시·복원위원회 등에서 재원마련을 한다.

譯抄 陵洞實記

慶州雲谷祠基址勿侵事管理署完文('管理 權鍾奭')

이 공문(公文)을 작성하여 발급하는 사항(事項)은 경주(慶州) 운곡(雲谷)은 곧 권태사공(權太師公)을 봉향(奉享)하고 공(公)의 후손(後孫) 죽림(竹林)과 귀봉(龜峰) 두 선생을 배향(配享)하였던 곳이라. 아득히 생각건대 권공(權公)의 깊은 인덕(仁德)과 두터운 혜택 및 두 선생의 절의(節義)와 학문은 실로 우리 동방(東方)의 백성과 선비의 존숭(尊崇)하는 바인 만큼 무릇 인성(人性)을 가진 자로서 누가 감히 감명(感銘)하고 사모하지 아니하겠는가? 지금 그 사당(祠堂)은 비록 철폐(撤廢)되었으나 단소(壇所)에서 향화(香火)를 받드는 절차는 옛날과 조금도 변함이 없는바, 지금 권씨(權氏)의 연명(連名)한 소청(訴請)을 접수하니 통도사(通度寺) 중 고산(古山)과 불국사(佛國寺) 중 경호(景鎬)가 서로 결탁(結託)하여 음흉(陰凶)한 심사(心事)로 허황(虛荒)한 말을 만들어 내어 사당을 세웠던 자리를 불당(佛堂)의 터라 하고, 권씨의 상석(床石)을 불탑(佛塔)의 돌이라 하여 관청을 기만하고, 단소를 파헤쳐 그 변괴(變怪)가 극심하니 아! 통탄(痛歎)스럽다. 가령 그 땅이 전대(前代)의 절터라 할지라도 뒤에 차지한 자가 주인이 되는 것은 불변(不變)의 정론(定論)인 만큼, 지금 사당집터가 되었으면 사당이 주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또 유교(儒敎)와 불교(佛敎)는 교리(敎理)가 달라서, 존중하고 배척(排斥)하는 것이 서로 다르거늘, 저희들이 어찌 감히 그러하겠는가? 상석으로 말하면 다른 산의 돌을 캐야 한다 하였는데, 하필 절의 옛 물건을 취(取)하여 왔겠는가? 설혹(設或) 그것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가히 잡을 만한 증거가 없고, 하물며 이것은 유가(儒家)에서 불결(不潔)하게 여기는 바요, 비록 권(勸)한다 할지라도 하지 아니함에 있어서랴. 이 모든 것은 두 중의 결탁 협잡(挾雜)한 흉계에서 나온 것이매, 나라에는 해당한 법이 있으니 가히 면치 못할 것이다. 잡히는 대로 엄중 징벌(懲罰)하고 일후(日後)에 만일 잘못을 답습(踏襲)하여 분규를 일으키는 자가 있거든 먼저 부(府)와 군(郡)으로부터 특별 엄금하는 한편, 경사(京司)로 급히 보고하여 재단(裁斷)을 받을 것을 해당 도(道)에 훈령(訓令)하고, 인하여 이 공문을 작성 발급한다.

鳳巖齋舍記

널리 생각건대 우리 낭중공(郎中公)은 태사공(太師公)을 뒤이어 대업(大業)을 이어받고 우리 후사자손(後嗣子孫)들에게 빛을 열어 주었으니, 이로써 후사자손이 또한 천억(千億)으로 번성(繁盛)하여 명공(名公)과 거현(巨賢)이 사서(史書)에 끊임없이 기록되었으며, 본원(本源)을 거슬러 미루어 볼 때 그 충열(忠烈)에 가득하여 빛나는 모습은 마땅히 금석(金石)에 새겨지고 가사(家史)에 기록되었을 것이나, 세대(世代)가 멀어지고 사적(事蹟)이 또한 없어져서 의관(衣冠)을 갈무린 곳(葬所)과 함께 상고할 바가 없으니 통탄함을 금할 수 없다. 청도군(淸道郡) 공암정자동(孔巖亭子洞) 간좌(艮坐-東北向)의 언덕에 두 개의 큰 묘(墓)가 있어 예로부터 권릉동(權陵洞)이라 일컬어지며, 입과 입이 서로 전하여 공(公)과 부인(夫人) 양천허씨(陽川許氏)의 분묘(墳墓)라 하였으므로 전후(前後) 수백년(數百年) 동안에 자손들이 다방면(多方面)으로 증거를 찾았으나 마침내 정확한 증거를 얻지 못하였던바, 지난 갑술년(甲戌年-서기 1934년) 봄에 후손인 전관찰사(前觀察使) 익상(益相)이 대섭(大燮)과 중철(重哲) 등으로 더불어 종중(宗中)에 대하여 도의(道義)를 제창하기를 묘는 비록 증빙(證憑)이 없으나 그곳에 단(壇)을 세워 해마다 향례(享禮)를 올리는 것은 예의에 어긋남이 없고, 또 일반인가(一般人家)에 이미 예(例)가 있으니 가히 아니할 수 없다 하고, 곧 재물(財物)을 수합(收合)하여 공사를 시작하고 묘 남쪽에 단을 모으고 돌을 세워서 표(表)를 하고, 산 아래 재사(齋舍)를 세우다가 여러 의론이 합하지 못하여 중지하고 말았으니, 전후 여러 차례 찾고 구한 것이 모두 다 당시의 현달(顯達)한 사람들이나 단사(壇祀)에까지 의론이 미치지 아니하였던 것은 그 식견(識見)이 지금 사람만 못하였던 것이 아니라, 첫째도 어렵고 조심스러움이요, 둘째도 어렵고 조심스러웠던 까닭인 바, 일에 앞나선 제공(諸公)들이 단연(斷然)히 행하였으며, 비록 경솔한 느낌이 없을 수 없으나 필경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때가 있는 것이매 인력(人力)이 좌우할 바 아니요, 4척(尺)의 봉분(封墳)도 마침내 빛이 날 때가 있을는지 그 누가 알겠는가? 청하건대 이 글을 쓰고 기다려 보리라. 後孫 命燮은 짓고 台淵은 쓰다.

墓前所得僞誌原文 '太師實記'

경계(境界)의 세 주봉(主峰)이 합하는 계곡 안에 있는 고려(高麗) 낭중(郎中) 안동권공(安東權公) 인행(仁幸)은 그 부친이신 태사(太師) 행(幸)은 본래 신라(新羅)의 종성(宗姓)으로서, 의(義)를 일으켜 고려왕을 맞이하여 견훤(甄萱)을 격파하였으므로 고려태조(高麗太祖)는 권씨(權氏)를 사성(賜姓)하고 대상(大相)을 배(拜)하고, 아보공신태사(亞父功臣太師)로 높였다.

고종(高宗) 을사년(乙巳年) 2월초 8일에 9세손(世孫)인 광록대부(光祿大夫)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수평(守平)은 쓰고 동시에 비석(碑石)을 세운다. 능(陵)의 사전(祀田)은 오리동내(吾里洞內)의 사백두락(四百斗落)이다.

(註) 청도(淸道) 정자촌(亭子村) 뒤에 있는 두 묘(墓)를 세인(世人)들이 전(傳)하여 권능(權陵)이라 하나 아직 실지 유적(遺蹟)을 얻지 못하였던바, 계묘(癸卯) 2월에 자인(慈仁)에 사는 권필수(權必修)가 몽조(夢兆)가 있어, 아래 묘가 낭중공(郎中公)의 묘임이 확실하다 하고 자담(自擔)하여 개수하고 묘전(墓前)에서 지석(誌石)을 얻었다 하므로 그 원문(原文)을 상고(詳考)한 즉 위조(僞造)한 것이 분명한바, 이를 기록하여 의문을 남겨둔다. 〈끝〉

議政公 遺墟碑 建立

복야공파(僕射公派) 판서공계(判書公系) 의정공(議政公) 휘(諱) 사빈(士彬) 선조(先祖)의 유허비(遺墟碑)를 다음과 같이 건립(建立)하기로 하였습니다. 유허비(遺墟碑) 건립의 취지(趣旨)를 깊이 이해(理解)하시고, 선조(先祖)를 위하는 이 사업이 유종(有終)의 미(美)를 거둘 수 있도록, 성금(誠金) 모금(募金)에 적극적(積極的)으로 협조(協助)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금(獻誠金)을 낸 내용을 기록(記錄) 보존(保存)하기 위하여 주소, 성명, 금액을 오석(烏石)에 음각(陰刻)한 헌성비(獻誠碑)를 유허비(遺墟碑) 인근(隣近)에 세울 예정(豫定)입니다.

◈ 遺墟碑建立 規模

⊙場 所 : 安東市 北後面 道村里 議政公 世居地
⊙規 模 : 碑身 七尺 龍頭 龜坐板
⊙敷 地 : 約 三百坪
⊙所要豫算 : 約 一億원(推定)
⊙성금계좌 : 농협 302-0591-0285-31
⊙예 금 주 : 의정공유허비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權 五 崇
⊙連 絡 處 : 安東市 北後面 道村里
⊙常任實務委員 : 權東一 전화 054-859-5329 010-7176-3309
⊙追 信 : 지역별(서울 부산 대구 등)추진위원회 구성 예정

◈ 贈 領議政 五先 權先生(諱 士彬) 後孫

1. 檥(號 野翁 20世)⇒ ①審己(21世 安東 道村) ②審言(21世 醴泉 渚谷) ③ 審問(21世) ④ 審思(21世 醴泉 眞勻) ⑤ 審辨(21世 奉化 三洞) ⑥ 審行(21世 安東 道村) ⑦ 審止(21世 安東 賢功山)
2. 橚(號 冲齋 20世)⇒ ① 東輔(21世 奉化 酉谷) ② 東美(21世 奉化 酉谷) ③ 東進(21世 奉化 酉谷)
3. 欐(字 叔泛 20世)⇒ ① 東弼(21世) ② 東敏(21世)
4. 檣(號 霽村 20世)⇒ 好金(21世 醴泉 渚谷)

2012.11.1

議政公遺墟碑建立推進委員會 委員長 權 五 崇